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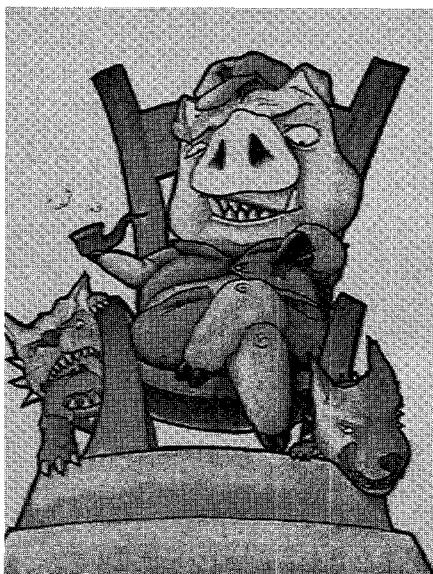
'2002 전국학생 발명상상화 및 캐릭터 그리기 대회' 수상자 결정

초등 발명상상화 대상(산업자원부장관상) 강수경 학생
고등 캐릭터 대상(산업자원부장관상) 이한모 학생

2002 전국학생 발명상상화 및 캐릭터 그리기 대회의 수상자가 결정됐다.

1,0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발명에 대한 관심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었던 이번 대회에서 초등 발명상상화 부문 대상(산업자원부장관상)은 전라북도 본동초등학교 6학년 강수경 학생이, 초등 캐릭터 부문 대상(산업자원부장관상)은 서울은로초등학교 6학년 김건민 학생이 차지했다. 또한 중학 캐릭터 부문 대상(산업자원부장관상)은 서울 동구여자중학교 3학년 신정원 학생, 고등 캐릭터 부문 대상(산업자원부장관상)은 광주 문성고등학교 3학년 이한모 학생에게 돌아갔다.

정진명 심사위원장은 발명상상화부문에서 "오염된 물, 더럽혀진 공기, 복잡한 교통과 망가져가는 숲 등 지구의 미래를 염려하며 그 해결방법을 상상하여 그런 작품들은 어린이들의 상상의 세계를 나타낸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표현방법을 동원하여 성실히 그려 완성한 태도를 높이 칭찬한다"며,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단순히 물감만이 아닌 다양한 재료를 덧붙여 표현효과를 높이려는 태도가 돋보였다"고 말했다. 캐릭터 부문에서는 "애석하게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런 학생은 20%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 학생들은 엉뚱하게 발명에 관한 것, 인물그림 등 문제와 관련 없이 평소 자기가 연습해오던 것을 그렸다"며 아쉬워했으나 "주인공의 특징과 내면적 성격 등을 잘 표현하고 그리기 솜씨가 뛰어난 작품이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 이번 대회에서 고등 캐릭터 부문의 대상을 수상한 광주 문성고등학교 3학년 이한모 학생의 작품. 조지 오웰의 작품 '동물농장'의 한 부분을 캐릭터화했다.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레저용품 출원 증가

국민소득 수준 향상과 더불어 대형사업장과 금융권 등의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여가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취미·오락 등 레저용품 의장(디자인) 출원이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도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레저용품 의장(디자인) 출원이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경제여건 호전과 직장 근무여건 변화에 따른 여가생활의 다양화와 수요자 기호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련업체들은 레저용품 관련 디자인 개발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의장(디자인) 출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레저용품의 연도별 출원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1,029건이 출원되었으나 2001년도에는 1,180건이 출원되어

MS, 익스플로러 특허 소송 위기

마이크로 소프트(MS)사가 주력제품 중 하나인 '인터넷 익스플로러' 특허 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지난 달 20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사법부는 캘리포니아 대학 등이 지난 1999년 제출한 익스플로러 특허침해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줄기차게 '소송 기각'을 요구해왔던 MS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한동안 특허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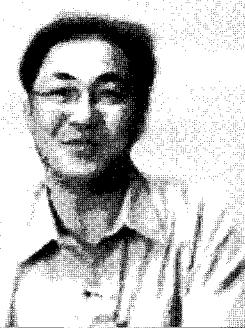
캘리포니아 대학 측이 MS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당시 이 대학교수 출신인 마이클 도일이 창설한 에올라스테크놀러지는 "MS가 양 방향 애플리케이션을 찾도록 해주는 우리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MS는 그 동안 "익스플로러의 작동 방식은 원고들의 주장과 다르다"며 소송 기각을 요청해 왔다.

MS 측은 "법원의 판결이 실망스럽긴 하지만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 다음 단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고문)

외국 제품 모방 출원 요령

백건수 변리사



백건수 특허법률사무소

(e-mail : patpen@patpen.co.kr)

문의전화 (02)538-3951

'컬러링' 특허 논란 일고 있다

통화대기음 대신 음악이나 다양한 멘트를 들려주는 SK텔레콤(대표 표문수)의 '컬러링' 서비스를 둘러싸고 특허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애드링시스템(대표 박원섭)은 지난 9월 10일 컬러링 서비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SK텔레콤에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애드링시스템은 경고장에서 지난 99년 특허를 출원, 2001년 10월 23일 특허를 획득한 '유무선 통신 단말기 및 이를 이용한 광고방법'을 SK텔레콤이 허가 없이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특허를 받은 기법은 교환망 또는 기지국에서 특정 신호나 음악, 음성, 화상 등의 정보를 단말기에 직접 송출해 발신음이나 벨소리로 출력해주는 것인데 컬러링 서비스가 이 발명의 구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특허를 침해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컬러링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관련 특허를 획득한 중소업체와 함께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후에도 다양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말했다.

전년대비 14.7%가 증가하였다.

의장(디자인)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주요 레저용품으로는 각종 오락용품과 운동경기용품, 악기관련용품, 낚시용품 및 레저용 차량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출원되고 있는 레저용품들의 특색은 보관, 운반 및 설치가 편리하도록 전반적으로 소형화·간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기능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높이고 더불어 품질 고급화에도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됨에 따라 레저용품의 디자인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레저용품 관련 의장(디자인)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외국발명 모방출원

국내에서 특허권이 있다고 하여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국·일본 등 외국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반대로 외국 여행 중에 좋은 제품을 보았는데, 그 제품이 국내에서 특허권이 없는 경우 자유롭게 그 제품을 생산하여도 된다. 이렇게 자국의 특허권은 자국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국제조약상 인정하고 있는 원칙이다(이를 '특허독립의 원칙'이라 한다).

또한, 외국 여행 중에 보았던 좋은 제품이 한국에 특히 출원되지 않았으면 한국특허청에 특허 출원할 수도 있고, 심사에 합격할 수도 있다. 다만, 이 제품이 인터넷이나 간행물에 실린 바가 없어야 하며 그 외국 제품이 외국특허청에 특허 출원된 바가 없어야 한다. 특허 출원되면 출원공개 등이 되어 특허공보라는 간행물에 실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국제품을 모방하여 특허 출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2. 외국상표 모방출원

외국의 유명 레스토랑 이름이나 의류명을 보고 나서 한국에서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역시 외국모방상표가 되는데, 이 경우 그 외국의 상표가 외국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니라면 한국에서 상표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고 외국에서만 존재하는 상표를 모방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의 상표등록출원 시점에 외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느냐 여부를 따지게 된다. 한국상표출원시점에 그 외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다소 알려져 있으면 한국에서의 상표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그 외국의 상표가 도형이 포함되어 있으면 가능한 이러한 도형은 모방하지 말고 (또는 도형을 변형시키고), 그 문자만을 모방하여 상표 출원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는 심사와 판례가 다르게 판단하는데서 기인한 것인데 창작성 있는 도형을 모방할 경우 그 외국 상표주가 이의신청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3. 외국의장 모방출원

국내에서 출시가 안되었고 외국에서만 출시된 어느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발명모방과는 달리 어느 경우든지 심사의 거절 이유가 된다. 즉, 의장법은 이미 알려진 의장의 범위에 외국에서 알려진 것도 포함하므로 특허법과 달리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국 디자인을 모방 출원하는 것은 금물이다.

4. 자신의 권리 보호

위에 설명한 것과 반대로 국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외국인이 이를 모방하여 자국에 특허출원 등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출시 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허출원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특허출원을 하였으면 간행물에 발표 또는 광고를 통해 외국인의 자국내 특허등록을 저지시켜야 하는 것이다.